

# 2024년도 법원직 한국사(1책형) 해설

## [정답표]

1	2	3	4	5
①	③	①	③	③
6	7	8	9	10
③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④	④	①	②	④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①	③
21	22	23	24	25
③	②	①	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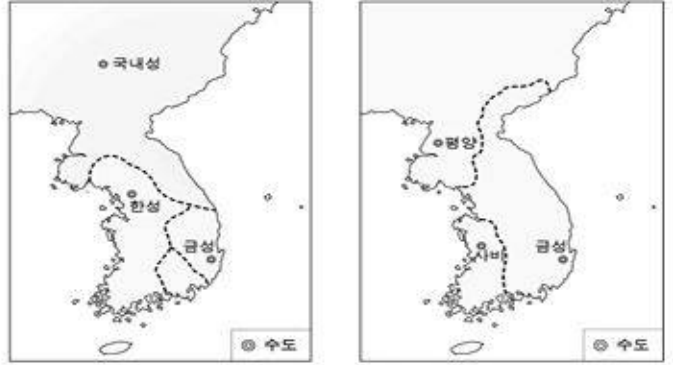
### <1번 문제 해설>

#### 오답 해설>

- ② 신라의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재위 37년인 576년의 일이다.
- ③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재위 15년인 429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이다(평양 천도). 재위 63년인 475년에는 백제의 한성[위례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제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을 전사시켰다(웅진 천도)(475~538, 웅진 시대 개막).
- ④ 신라 지증왕이 국호를 '신라'로 정한 것은 재위 4년인 503년의 일이다. 이때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지증왕(재위 500-514, 제22대)].

## 1 - 4세기와 6세기 사이의 사실

【문 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①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하였다.
- ② 진흥왕이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 ③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지증왕이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 정답> 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가) 지도는 한성을 도읍[수도]으로 하는 백제의 영토[세력]가 가장 큰 백제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 주는 지도(4세기)이고, (나) 지도는 금성을 도읍[수도]으로 하는 신라의 영토[세력]가 함경도 지역과 한강 하류까지 크게 늘어난 신라의 전성기를 보여 주는 지도(6세기)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로 근초고왕 대(재위 346-375, 제13대)를,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로 진흥왕 대(재위 540-576, 제24대)를 꼽는다[참고로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로 장수왕 대(재위 413-491, 제20대)](통론).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한 것은 재위 4년인 56년의 일이다[태조왕(재위 53-146), 제6대]. 정확하게는 이때 복속된 것은 함흥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옥저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옥저(북쪽에 흩어져 있던 옥저 잔여 세력)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광개토 대왕 대(재위 391-412, 제19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한 지방[성]으로 편입되어 소멸하였다.\*

\*남·북에 흩어져 있던 옥저 잔여 세력이 285년(고구려 서천왕 16) 고구려가 직접 지배하기까지(만) 존속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서천왕(재위 270-292), 제13대].

## 2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문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건국강령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이는 사회 각 계급·계층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라고 한 것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임.

- ① 충칭에서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② 1941년 일제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③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 ④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 인사가 합류하였다.

정답> ③

'(가)의 건국 강령'이라는 제목 아래 1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이는 사회 각 계급·계층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라고 한 것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이 (임시 정부 공보를 통해) 발표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1941.11.28). 조소앙(1887~1958)이 기초한 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임시 정부 국무 위원회 명의로 공포).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독립 동맹이 지도하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2년 7월의 일이다(이때 조선 독립 동맹도 발족).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는 화북 지역에서의 무장 투쟁을 위하여 태항산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 주력 대원들이 그곳의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 회원들과 통합하여 만든 조직이다(1941.7.7).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개 장과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향후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1940년 9월의 일이다(1940.9.17).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1941.12.10). 임시 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전후 처리에서 연합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함). 참고로 1945년 2월에는 독일에도 선전 포고를 하였다(1945.2.28).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민족 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 인사가 합류한 것은 1942년 10월부터의 일이다(좌우의 정치적 통일 추진). 군사적 통일로는 이미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1942년 5월 한국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임정 정부는 좌우연합[좌우합작] 정부로 변화하였고, 임시 의정원은 좌우합작의 '통일 의회'가 되었다(즉 좌익 계열의 인사들에게 정부와 의정원에 일정 몫의 자리 분배).

### 3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사실

[문 3]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명군 도독 이여송이 대병력의 관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평양성 밖에 다다라 제장에게 부서를 나누어 본성을 포위하였습니다. ... 조선의 장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매복하고 함께 대로로 나아가니 왜적들은 사방으로 도망가다가 복병의 요격을 입었습니다.
- (나)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①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 ② 신립 장군은 충주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 ③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 ④ 조선은 왜구의 약탈을 근절하고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정답> ①

(가)에 '명군 도독 이여송이 대병력의 관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평양성 밖에 다다라 제장에게 부서를 나누어 본성을 포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의 장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매복하고 함께 대로로 나아가니 왜적들은 사방으로 도망가다가 복병의 요격을 입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선조 26년인 1593년 1월의 일이다(평양성 전투, 1593.1.8)[임진왜란(1592.4~1598.11), 정유재란 포함].

(나)에는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1636) 11월 8일 기사로, '부교리 윤집이 최명길의 죄를 놓한 상소'의 앞부분이다. 즉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를 적극 반대한 척화론자[주전론자]로 홍익한(1586~1637), 오달제(1609~1637)와 함께 청에 잡혀가 처형된 삼학사 중 한명인 윤집(1606~1637)이 당시 이조판서였던 최명길(1586~1647)의 화의론[주화론]을 (병자호란 발발 한 달여 전에) 비판하는 내용이다(병자호란 발발 전부터 주전론과 주화론 논쟁 이미 발생). 임

진왜란 때 명 신종(만력제)(재위 1572-1620, 제13대)이 군사를 보내 조선을 도와 준 것을 이르는 말인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사고가 잘 나타나 있다.

5도 도원수 강홍립(1560~1627)이 이끄는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직후 후금에 항복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의 일이다.

\*재조지은(再造之恩): '거의 망하게 된 나라(왕조)를 구원해 주어 도와준 은혜'라는 뜻으로 명에 대한 강력한 '부채 의식' 및 '보은 이데올로기'이다('소중화 의식' 형성에도 기여).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

오답 해설>

② 삼도도순변사 신립 장군(1546~1592)이 (충북) 충주의 탄금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2년(선조 25) 4월의 일이다(1594.4.26~28).

③ 인조가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에 나가 청 태종(재위 1626-1643, 제2대, 흥타이지)에게 굴욕적인 항복\*\*\*한 것은 1637년(인조 15) 1월의 일이다(1637.1.30, 삼전도의 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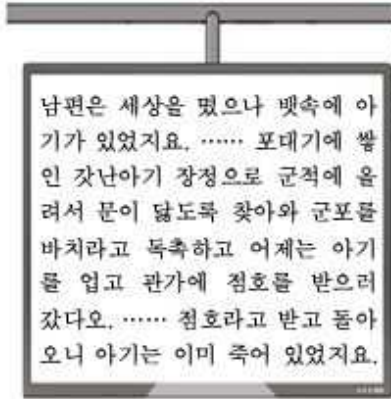
\*\*\*항복의 예로 '삼배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 또는 '삼궤구고두례 (三跪九叩頭禮)'를 행하였다.

④ 조선이 왜구의 약탈을 근절하고자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한 대표적인 경우는 무신 이종무(1360~1425)가 토벌\*\*\*\*한 1419년(세종 원년) 6월의 일이다.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세 차례 토벌되었는데, 고려 말인 창왕 원년(1389)에 무신 박위(?~1398)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문신 김사형(1341~1407)이 태조 5년인 1396년에, 무신 이종무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각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각 1396.12~1397.1/14 19.6~7). 참고로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을 기해동정(己亥東征)이라고 부른다.

## 4 - 균역법 시행

【문 4】 밑줄 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시에서 나타난 조세 제도를 감면한 뒤 발생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하였다.
- ② 풍흉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조세를 거두었다.
- ③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내게 하였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하였다.

정답> ③

오른쪽 말풍선에 '이 시에서 나타난 조세 제도를 감면한 뒤 발생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왼쪽에는 '남편은 세상을 떠으나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요. ……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장정으로 균적에 올려서 문이 닫도록 찾아와 군포를 바치라고 독촉하고 어제는 아기를 업고 관가에 점호를 받으러 갔다오. …… 점호라고 받고 돌아오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후기의 여항 시인인 정민교(1697~1731)의 서사시 **군정탄(軍丁歎)**이다.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문란]\*\*** 중 하나인 **황구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잘 드러나 있다. 영조(재위 1724~1776, 제21대)는 이러한 군정의 폐단을 막고자 재위 25년인 1750년에 균역법을 시행하였지만 군정의 폐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이르러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삼정의 폐단 [문란]으로 확대).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내게 한 것은 균역법 실시(1750, 영조 26)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 외 1결당 쌀 2두의 결작, 해세·어장세·선박세 등을 징수하였다.

\*'이 시에서 나타난 조세 제도를 감면한 뒤'라는 문구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일종의 비문('조세 제도를 감면')이다. '이 시와 관련한 조세 제도를 시행한 뒤' 정도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문란]으로 족징(族徵), 인징(隣徵),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의 있었다. 족징은 납부 대상자가 사망, 도망하였을 때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것이고, 인징은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것이다. 백골징포는 이미 죽은 사람을 균적에 올려 놓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고, 황구첨정은 균역 대상이 아닌 15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라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음을 폐지한 것은 2년 뒤인 689년(신문왕 9)의 일이다.

②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조세를 거둔 것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인 영정법이다(1635, 인조 13).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전세의 정액화).

④ 토지 소유자에게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한 것은 대동법이다(1608~1708).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전결화]한 것이다.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하였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

## 5 - 고려 광종과 성종 사이의 사실

[문 5]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내도록 명하였다.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로 말미암아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므로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가을 7월, 교(敎)하기를, "양민이 된 노비들은 해가 점차 멀어지면 반드시 그 본래의 주인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게 된다. ... 만약 그 주인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천민으로 되돌려 부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 ② 거란이 개경을 점령하였다.
- ③ 전시과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 ④ 공신들에게 역분전이 지급되었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내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로 말미암아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므로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에 시행된 노비안검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가을 7월, 교(敎)하기를, 양민이 된 노비들은 해가 점차 멀어지면 반드시 그 본래의 주인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만약 그 주인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천민으로 되돌려 부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성종 6년인 987년에 실시된 노비환천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건의한 바 있음). 노비안검법 시행 이후 종량된 노비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시키도록 한 조치로, 일종의 귀족 무마책이었다(환천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음). 전시과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이다(시정 전시과).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다시 경정 전시과(전시과의 완성)가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①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1009)을 제거하고 목종(재위 997~1009, 제7대)까지 폐위시킨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이때 현종(재위 1009~1031, 제8대) 옹립].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거란의 침입을 6차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쟁의 규모에 따라 1차(993년 10월), 2차(1010.11~1011.1), 3차(1018.12~1019.2) 총 3차례로 구분한다(통설).

② 거란이 개경을 점령한 것은 제2차 침입 때의 일이다(1010.11~1011.1) 정확하게는 현종 2년인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이 개경에 입성하였다. 이때 국왕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피란을 갔다.

④ 공신들에게 역분전이 지급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개국 공신의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시정 전시과 이전의 토지 제도이다.

## 6 - 가야

【문 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해·고령 등 (가) 고분군 7곳,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됐다.

유네스코 "고대 문명의 주요 증거"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는 유적 7곳을 묶은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됐다. ... (가) 은/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 2023. 9. 18. □□ 일보 -

- ①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 ② 철기를 활발히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 ③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 ④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이 결성되었다.

정답> ③

'김해·고령 등 (가) 고분군 7곳,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됐다. 유네스코 고대 문명의 주요 증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는 유적 7곳을 묶은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됐다. ... (가)은/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에 나온 바와 같이 2023년 9월 가야 연맹의 고분군인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2023.9.17). 유적 7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가리킨다.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국가는 신라이다(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 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 6두품은 6관등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제한 없이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가야는 대략 3세기 중반 이후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 12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가야 연맹체를 형성하면서 등장하였다(가야 연맹체 형성을 부정하는 설 있음).
- ② 가야, 특히 금관가야에서는 철기가 활발히 생산되어 낙랑, 왜 등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 ④ 4세기를 전후해 변한의 구야국에서 발전한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5세기 초인 400년에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어 세력이 약해지다가 532년(신라 법흥왕 19) 신라에 병합되어 멸망하였다.

## 7 - 제1차 왕자의 난과 쓰시마섬 정벌 사이의 사실

【문 7】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의성군(宜城君) 남은과 부성군(富城君) 심효생(沈孝生) 등이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나) 상왕이 말하기를,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노만 받는다면, 한(漢)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구주(九州)에서 온 왜인만은 구류하여 경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 또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후일의 환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하고, 곧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명하여, 중군을 거느리게 하였다.

- ① 경연이 폐지되었다.
- ②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 ③ 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다.
- ④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다.

정답> ③

(가)에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의성군(宜城君) 남은과 부성군(富城君) 심효생(沈孝生) 등이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 8월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일명 방원의 난 또는 무인정사,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나)에는 '상왕이 말하기를,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노만 받는다면, 한(漢)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주(九州)에서 온 왜인만은 구류하여 경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 또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후일의 환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하고, 곧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명하여, 중군을 거느리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 이종무(1360~1425)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토벌\*한 것은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자료 속 '상왕'은 조선 태종(재위 1400-1418, 제3대)이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이후 세종 18년인 1436년에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채택되었는데, 세조 원년인 1455년에 6조 직계제가 다시 시행되었다(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구축).

\*3번 쓰시마섬 정벌 관련 해설 참조

**오답 해설>**

① 경연이 폐지된 것은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을 빌미로 이때 사육신 등을 처형하고, 집현전 및 경연을 폐지하였다.

②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한) 홍문관이 처음 설치된 것은 성종 9년인 1478년의 일이다.

④ 위화도 회군이 단행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 당시 우군 도통사 이성계(1335~1408)는 4불가론\*\*을 내세워 반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에 의해 요동 정벌이 강행되자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4불가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요,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요, 왜구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세 번째요, 장마철이어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질병이 들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이다."

**<8번 문제 해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대가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8 - 초기 국가, 삼한**

**【문 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 ②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 ③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 ④ 사출도라 불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다.

**정답> ③**

'(가)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지, 읍차 등의 우두머리[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삼한에는 또한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하였다.

삼한은 마한·진한·변한을 가리키며,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중국 사서인 『후한서』에 따르면 마한에는 54국, 진한에는 12국, 변한에는 12국이 있다고 하였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매년 10월)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② 화백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 국가는 신라이다. 화백 회의는 신라의 귀족 회의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④ [대가들인 여러 가(加)들이 주관한] 사출도(四出道)\*\*라 불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대가들은 대사자, 사자, 대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 9 - 고구려 광개토 대왕

【문 9】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10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② 마한을 병합하고 평양을 공격하였다.
- ③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정답> ④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0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내물왕[내물마립간](재위 356-402, 제17대)이 왜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재위 391-412)에게 군사를 청한 것은 경자년[고구려 영락 10]인 400년의 일이다(신라 내물왕 [내물마립간] 45/고구려 광개토 대왕 10). 고구려군은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고, 이와 같은 고구려의 신라 구원은 곧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한반도 남부 지방 전체에까지 고구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금관가야 약화, 전기 가야 연맹 해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재위 2년(영락 2)인 392년부터 북으로 거란을 정벌하였고, 재위 5년(영락 5)인 395년에는 거란의 일부로 추정되는 비려를 또한 정벌하였다. 재위 8년(영락 8)인 398년에는 북쪽으로 속신(만주 북동부 지역에 거주)을 정복하였으며, 재위 15년(영락 15)인 405년과 재위 16년(영락 16)인 406년에는 후연(모용희)의 침입을 연이어 격퇴함으로써 요동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재위 20년(영락 20)인 410년에는 동부여를 정벌하였다.

오답 해설>

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한 '왕'은 고구려의 제17대 왕인 소수림왕(재위 371-384)이다[각 372(소수림왕 2)/373(소수림왕 3)].

② 마한을 병합하고 평양을 공격한 '왕'은 백제의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 근초고왕은 재위 2년(347)부터 21년(366)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마한 지역을 복속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이후 근초고왕은 재위 26년인 371년에 한강에 접한 한산(위치와 관련해 여러 설 있음)으로 도읍을 옮기고 북쪽의 고구려와 계속해서 싸우는 한편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372, 근초고왕 27)하기 때문이다(『삼국사기』). 이와 같은 행보는 남쪽의 마한 지역이 복속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재위 26년인 371년의 일이다.

③ (대수장 또는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라의 제17대 왕인 내물마립간 대(재위 356-402)의 일이다[이후 제21대 소지마립간 대(재위 479-500)까지 사용].



# 10 - 서인과 남인

【문10】 (가), (나)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효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제(服制)가 쟁점이 되었다. (가) 은/는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같은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나) 은/는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가) -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 ② (가) -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③ (나) -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 ④ (나) - 송시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 정답> ②

'효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服制)가 쟁점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같은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나)은/는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조대비](1624~1688)\*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것은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의 일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그중 1차 예송인 기해예송은 효종의 사후 발생한 예송으로 결과적으로 서인의 기년설(1년설)이 채택되었다(서인 승리)[참고로 2차 예송(갑인예송)에서는 기년설(1년설)을 주장한 남인 승리, 서인은 대공설(9개월설) 주장]. 예송은 결국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함(장자로 대우)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과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장자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 간의 권력 투쟁[이념 대립]이었다.

\*자의 대비: 16대 국왕인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1624~1688)이다. 현종 대의 대왕대비(현 왕의 할머니)로 조대비라고도 하였다.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집단[붕당]은 서인이다(1680, 숙종 6). 남인에서 서인으로 집권 세력이 교체되었으며, '경신대출척'이라고도 부른다.

## 오답 해설>

①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집단[붕당]은 북인이다(1623, 광해군 15).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남인도 참여)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1595~1649)을 왕위(인조, 재위 1623-1649, 제16대)에 앉혔다.

③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 집단[붕당]은 서인이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경신대출척] 이후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이 강·온 양 파로 분리되면서였다. 이때 강경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노장파로 노론, 온건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소장파로 소론으로 불리었다. 1683년(숙종 9)에 노장파인 김익훈이 남인을 강력히 탄압하자 소장파인 한태동 등이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결정적인 발단이 되었다.

④ 우암 송시열(1607~1689)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한 집단[붕당]은 서인이다(그중에서도 노론).

# 11 - 천주교 박해 사건들

【문11】 (가)~(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 (나) 이승훈이 최창현·홍낙민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 (다) 윤지충과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고, 진산군(珍山郡)은 현(縣)으로 강등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정답> ④

(가)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천주교인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후 갖고 있다 체포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의 일이다. 1801년 1월부터 시작된 신유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다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나)에는 '이승훈이 최창현·홍낙민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순조 원년인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를 가리킨다. 만천 이승훈(1756~1801)은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세례 교인, 세례명 베드로)이다. (다)에는 '윤지충과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고, 진산군(珍山郡)은 현(縣)으로 강등하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최초의 천주교 박해[탄압] 사건인 '진산 사건'을 가리킨다(1791, 정조 15). 전라도 진산(珍山)의 두 선비 권상연(1750~1791), 윤지충(1759~1791)이 제시된 대로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워 발생한 사건으로, '신해박해'라고도 부른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상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나)-(가)'가 된다.

# 12 - 1870년대~1880년대의 일본, 청, 미국

【문12】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조선은 김기수와 김홍집을 수신사로 (가)에 파견하였다. (나)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우는 유학생을 보냈다. 또한 조선은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다)에 파견하였다.

- ① (가) -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하였다.
- ② (나) -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 ③ (다) -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④ (가)와 (나) -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④

'조선은 김기수와 김홍집을 수신사로 (가)에 파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우는 유학생을 보냈다. 또한 조선은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다)에 파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일본, '(나)'는 청, '(다)'는 미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과 임오군란(1882) 직후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에는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다(~1882.11). 마지막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 이후 미국이 푸트 공사(1826~1913)를 조선에 파견하자(1883.4),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고종이 그에 대한 답례로 1883년(고종 20) 7월에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였다(~1884.5).

\*수신사: 총 네 차례 파견되었는데 1차 수신사[창산 김기수]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4월에(~윤6월), 2차 수신사[도원 김홍집]는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관세를 설정하는 문제 등으로 1880년 6월에(~8월), 3차 수신사[조병호]는 관세 설정을 확정하기 위해 1881년 8월에(~11월), 마지막으로 4차 수신사[박영효]는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1882년 8월에(~11월) 일본에 파견되었다. 참고로 4차 수신사의 공식 명칭은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이다.

\*\*영선사: 중국의 선진 문물(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견학하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온건 개화파인 윤양 김윤식(1835~1922)이 이끌었다. 청의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였다. 파견된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는데 기여하였다(1883.3).

# 13 - 기인 제도

【문13】 다음 정책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신라 왕 김부가 항복해 오니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다.

- ① 기인제도
- ② 복진정책
- ③ 정혜쌍수
- ④ 독서삼품과

정답> ①

'신라 왕 김부가 항복해 오니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재위 927-935, 제56대)가 고려에 귀부하여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935년(태조 18)의 일이다(귀부한 것은 935년 11월, 정성공에 봉해지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935년 12월, 경주를 식읍으로 받음). 사심관이란 지방에 연고가 있는 중앙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정확하게는 감독하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으로 고려가 지방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여한 것이다.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해 기인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재위 시인 920년대~930년대의 일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오답 해설>

②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초부터 복진 정책을 추구하였다. 재위 4년인 921년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西京)이라 하고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기록상 '서경'이라는 명칭이 처음 보임).

③ 정혜쌍수(定慧雙修)란 선정의 상태인 '정'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인 '혜'를 함께 닦아 수행해야 한다는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주장이다.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면서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1190, 고려 명종 20).

④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가 시행된 것은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오답 해설>

①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한 국가는 청이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임오군란이 일어나자(1882.6~7), 청은 봉기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한 후 청의 텐진 보정부에 억류하였다(1885년 8월 귀국).

② 조선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는 (청이 아니라) 일본이다(1876.2).

③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④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85년(고종 22) 4월의 일이다. 주요 내용은 청과 일 양국 군대가 동시 철수하고, 동시 파병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동학 농민 운동 시 조선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을 때 일본이 출병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 14 - 고려의 대간

【문1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불렀다. 이들은 (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한국사 용어 사전」 -

- ①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 ② 중추원의 추밀과 함께 법제와 격식 제정
- ③ 관원 임명시 동의 여부에 서명할 수 있는 서경
- ④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정답> ②

'○○: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불렀다. 이들은 (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은 탄핵과 감찰을 맡은 대관과 간쟁과 봉박을 맡은 간관의 합칭인 '대간(臺諫)'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간은 언론권(서경권, 간쟁권, 봉박권)을 행사하였다.

중추원의 추밀[추신]과 함께 (대내외의) 법제와 격식을 제정한 고려의 중앙 기구는 식목도감이다.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재부[재신]와 낭사로 구성)과 중추원(추밀[추신]과 승선[승제]로 구성)의 고위 관료들(중서문하성의 재부[재신]와 중추원의 추밀[추신])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요컨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추(宰樞)의 회의 기관이다. 특히 식목도감은 고려 성종 이후 현종 초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되었다. 고종 이후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도병마사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단지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구로 전락하였고, 조선 초까지 지속되다가 태종 12년인 1412년에 의정부로 흡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은 간쟁권으로, 언론권의 하나이다.
- ③ 관원 임명 시 동의 여부에 서명할 수 있는 서경은 서경권으로, 역시 언론권의 하나이다.
- ④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은 봉박권으로, 역시 언론권의 하나이다.

## 15 -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문15】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나) 고부에서 만석보가 허물어졌다.  
(다)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다) - (가)
- ④ (나) - (가) - (다)

정답> ④

(가)에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집강소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합의로 설치한 일종의 농민 자치 기구이자 자치적 민정 기구이다.\* 동학 농민군은 호남 지방[전라도]의 각 군현[53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시도하였다(호남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군현에도 설치되었다는 주장 있음). (나)에는 '고부에서 만석보가 허물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봉준(1855~1895)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지금의 전북 정읍) 관아를 습격한 것은 1894년(고종 31) 1월의 일이다(1894.1.10)(고부 농민 봉기). 그리고 장흥 부사 이용태(1854~1922)가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된 것은 같은 해 2월 16일의 일이다. 하지만 이용태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3월 2일에야 고부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신임 군수 박원명을 협박하여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무작정 잡아들이고 집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러 결국 동학 농민군이 제1차 봉기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다)에는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1895.4.17).

\*고종 31년인 1894년 7월 6일에 동학 농민 운동 제1차 봉기 주동자인 전봉준(1855~1895)과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1838~1917) 사이에 집강소 설치가 합의되었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 16 - 고려 시대의 주요 사건들

【문16】 (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 의천이 불전과 경서 1,000권을 바치고, 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둘 수 있기를 아뢰었다. 요와 송에서 책을 사들여 4,000권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죄다 간행하였으며, 천태종을 처음 열어 국청사에 두었다.

(다)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색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나) - (다) - (가)
- ④ (다) - (나) - (가)

정답> ②

(가)에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 정권기인 고려 명종 6년(1176)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난(망이·망소이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려 조정은 공주 명학소의 난(망이·망소이의 난)까지 일어나자 이들을 회유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진압을 하려 했으나 이 역시 패하여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현령과 현위를 파견하여 저항 세력을 위로하고 달래는 회유책을 썼다. 그렇지만 망이, 망소이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재차 봉기하자 강경책을 펼쳐 이듬해(1177, 명종 7) 5월 충순현을 다시 명학소로 강등시키고 군대를 보내 토벌하였다(같은 해 7월 진압, 약 1년 동 동안 진행). 참고로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 구역을 주현으로 승격시킨 또다른 예로 고종 19년인 1232년 제2차 몽골 침입 시 처인부곡민이 공을 세우자 처인현으로 승격된 것을 들 수 있다. (나)에는 '의천이 불전과 경서 1,000권을 바치고, 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둘 수 있기를 아뢰었다. 요와 송에서 책을 사들여 4,000권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죄다 간행하였으며, 천태종을 처음 열어 국청사에 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각국사 의천이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다. 또 의천이 불전과 경서 1,000권을 바친 것은 중국 송으로 유학갔다가 돌아왔을 때이다[1085년(선종 2) 5월~1086년(선종 3) 6월]. (다)에는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색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한 것은 고려 공민왕 16년인 1367년의 일이다(성균관 중건). 공민왕은 성균관을 부흥시켜 종래까지 유교학부와 함께 설치되어 있던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를 완전히 분리시켜 따로 교육시키게 함으로써, 성균관을 명실공히 유학 교육만을 전담하는 최고 학부로 개편하였다[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 설치].

이상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 17 - 고왕 대조영과 발해

【문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가)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나)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 보 기 >

- ㄱ. (가)은/는 고구려의 왕족 출신이다.
- ㄴ. (가)은/는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 ㄷ. (나)은/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 ㄹ. (나)의 군사제도로 9서당 10정이 있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정답> ②

위의 자료에 '(가)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구당서』(940~945)].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나)라 하였다. 이것을 (나)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유득공, 『발해고』(1784, 정조 8)].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재위 698-719)을 가리키고, '(나)'는 발해를 가리키는 중국 사서는 『구당서』이다.

- ㄱ. 대조영은 고구려의 귀족 출신 유민이다. 『신당서』에 아버지가 사리(舍利) 걸걸중상(?~?), 『오대사』에는 대걸걸중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리란 '수령' 또는 '족장'의 뜻이다.
- ㄴ.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당의 산둥반도 등주를 선제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 ㄷ. 발해가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은 926년의 일이다.
- ㄹ. 군사 제도로 9서당 10정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이다[각 687(신라 신문왕 7)/685(신문왕 5)].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설명은 'ㄷ' 뿐이다.

## 18 - 신라 진성 여왕 대의 사실

【문18】 밑줄 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州)·군(郡)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쓸쓸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 보 기 >

- ㄱ. 적고적의 난이 발생하였다.
- ㄴ. 김헌창의 반란이 진압되었다.
- ㄷ. 만적이 신분 해방을 주창하였다.
- ㄹ.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②

'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州)·군(郡)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쓸쓸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왕'은 신라의 제51대 국왕인 진성 여왕(재위 887-897)을 가리키는 알 수 있다.

- ㄱ. '붉은색 바지를 입어'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린 적고적의 난이 발생한 것은 신라 진성 여왕 10년인 896년의 일이다.
- ㄴ. 김헌창(?~822)의 반란이 진압된 것은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헌덕왕(재위 809-826, 제41대)]. 김헌창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7대손]이자 김주원(?~?)의 아들로, 부친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 ㄷ. 최충헌의 노비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신분 해방을 주창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만적의 난). 만적의 난은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 ㄹ.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지금의 경북 상주)에서 봉기한 것은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진성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ㄱ과 ㄹ'이다.

# 19 - 대각국사 의천

[문19] 밑줄 친 '후(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후(煦)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송나라 황제와 이름이 같으므로 그것을 피하여 자(字)로 행세하였다. 문종이 여러 아들에게,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의 이익을 짓겠느냐?"라고 물으니 후(煦)가, "상(上)의 명령대로 하겠다." 하고,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에 거처하였다. 그는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려 했으나 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煦)는 송나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나 여러 절을 다니며 법을 묻겠다고 하였다.

- ①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②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③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④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 정답> ①

'후(煦)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송나라 황제와 이름이 같으므로 그것을 피하여 자(字)로 행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문종이 여러 아들에게,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의 이익을 짓겠느냐?라고 물으니 후(煦)가, 상(上)의 명령대로 하겠다 하고,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에 거처하였다. 그는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려 했으나 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煦)는 송나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나 여러 절을 다니며 법을 묻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후(煦)'는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제11대)의 넷째 아들이자 순종(재위 1083, 12대), 선종(재위 1083-1094, 제13대), 숙종(재위 1095-1105, 제15대)의 친동생인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후(煦)'는 휘(諱)\*이고 의천(義天)이 자(字)\*\*이다. 의천은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1085년(선종 2) 5월 중국 송으로 유학하였으며 이듬해인 1086년(선종 3) 6월 1천여 권의 불교 서적 [불전과 경서]을 가지고 귀국한 바 있다.

의천은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휘(諱): 왕이나 제후 등이 생전에 쓰던 이름이다. 죽은 사람의 생전의 이름을 삼가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자(字): 주로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본이름 외에 부르는 호칭이다. 실제의 이름이 아닌 부명(副名)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③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은 고려의 고승,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 혜심은 또한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은 공안집[화두집]인 『선문염송집』을 편찬하였다(1226, 고종 13). 참고로 혜심은 출가 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국자감의 태학에 입학한 유학도였다.
- ④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인물은 고려의 고승,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1190, 고려 명종 20).



## 20 - 1860년대~1870년대의 주요 사건들

【문20】 (가)~(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가)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 정족 산성 수성장 양현수가 ... 우리 군사들이 좌우에 매복했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가 6명이고 아군은 죽은 자가 1명입니다.  
 (다)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다가 수많은 총알을 고슴도치의 털처럼 맞아서 순직하였으니 ... 죽은 진무중군 어재연에게 특별히 병조 판서와 지삼군부사의 관직을 내리노라.  
 (라)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각 항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 (가)

정답> ③

(가)에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독일 상인[독일계 유대 상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1788~1836)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68.5). (나)에는 '정족산성 수성장 양현수가 ... 우리 군사들이 좌우에 매복했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가 6명이고 아군은 죽은 자가 1명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순무천총 양현수(1816~1888)가 이끄는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한 것은 병인양요 때(1866.10~11)의 일이다[1866.11, 이 외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활약(1866.10)]. (다)에는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다가 수많은 총알을 고슴도치의 털처럼 맞아서 순직하였으니 ... 죽은 진무중군 어재연에게 특별히 병조 판서와 지삼군부사의 관직을 내리노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무중군 어재연(1823~1871)이 강화도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항전한 것은 신미양요 때의 일이다(1871.5). 어재연이 강화도로 급파되면서 데리고 간 부대는 훈련도감에서 2초(1초는 125명), 금위영과 어영청, 총융청 등에서 각군 1초씩을 뽑은 총

1,000여 명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성보 소속의 3개 돈대에 조정 배치되었다[각종 대포 143문도 동원, 어재연 장군 동생인 어재순(1826~1871)도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 (라)에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각 항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 13년인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76.2.27)(치외법권을 규정한 제10조).

이상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라)'가 된다.

## 21 - 1900년대 대한 제국의 국권 피탈 조약들

【문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병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나)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다)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① (가) 조약 체결로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나) 조약 체결로 청과 일본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③ (다) 조약 이후 일본은 독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④ (가)-(다)-(나) 순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③

(가)에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병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04년 8월 일제의 강요에 의해 맺은 제1차 한일 협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4.8.22)(제1조). 제1차 한일 협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이며, '외국인용병협정(外國人傭聘協定)',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라고도 한다. (나)에는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5.11.17)(제2조). (다)에는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러일 전쟁 결과 러시아가 일제에 대한 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을 인정한 포츠머스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5.9.5)(제1조).

일본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의 일이다(1905.1.28, 내각 회의에서 결정). 이어 같은 해 2월에 일본은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를 시마네 현에 무단 편입시켰다(1905.2.22,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오답 해설>

- ①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일본인 메가타 다넨타로(1853~1926)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5년 7월부터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1909.12).
- ② 청과 일본 간의 간도 협약이 체결된 것은 1909년 9월의 일이다.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하여 대한 제국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 멋대로 영토 관련 외교 사안을 청과 협약한 것이다.
- ④ (가)-(다)-(나) 순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22 - 1910년대[무단 통치기]의 모습

【문22】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선 밖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① 국민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의 모습
- ② 대한 광복회를 체포하려는 헌병 경찰의 모습
- ③ 치안유지법에 의해 구금되는 독립운동가의 모습
- ④ 농촌 진흥 운동을 홍보하는 조선 총독부 직원의 모습

정답> ②

제1조로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제2조로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마지막 제3조로 '조선 밖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다. 참고로 회사령은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폐[폐지]되었다(신고제[계출제]화됨). 일제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으로 폐지한 것이다.

대한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비밀리에 결성되었다(~1918.1). 의병장 허위(1854~1908)의 문하인 고현 박상진(1884~1921)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1918년 1월에 전국의 조직망 발각).

오답 해설>

- ① 소학교가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제3차 조선 교육령 일부 개정).
- ③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④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2년이다(~1940). 조선 총독부 주도로 이루어진 관제 농민 운동이다.

## 23 - 흥경래의 난

【문23】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 지역의 부로자제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조정에서는 관서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도 사람만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 ① 왕실과 혼인을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유득공 등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용하였다.
- ③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여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견었다.
-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급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정답> ①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 지역의 부로자제\*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정에서는 관서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도 사람만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흥경래의 난이 일어난 것은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1811.12~1812.4(음력)/1812.1~1812.5(양력)].

흥경래의 난이 일어난 순조 대에는 왕실과 혼인을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세도 정치기\*\*\*였다.

\*부로자제(父老子弟): 성인 어른과 아이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군후(君侯): 원래는 제후를 높여 부르는 말이나 여기서 는 문맥상 관청[관아]의 관리를 가리킨다.

\*\*\*세도 정치기: 정조 사후, 순조-헌종-철종에 이르는 60년 간 소수 가문(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반남 박씨 등 6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를 말한다. 특히 순조, 철종 대의 안동 김씨와 헌종 대의 풍양 조씨의 세도가 강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영재[고운당] 유득공(1748~1807) 등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용한 것은 조선 정조 3년인 1779년의 일이다.

## 24 - 고려 무신 집권자 최충헌과 이의민

【문2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지영이 장군이 되었다. 그가 최충수 집의 비둘기를 빼앗았는데, 최충수가 화가 나서 그 형인 ㉠ 최충헌에게 그 사실을 아뢰고 ㉡ 이의민 부자를 죽이자고 하니, 최충헌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이의민이 미타산 별장에 갔을 때, 최충헌 등이 가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저자에 내걸었다. 당시 이지순은 대장군이었고, 이지광은 장군이었는데, 변란의 소식을 듣고 가동을 이끌고 길에서 싸웠다. - 「고려사」 -

- ① ㉠ -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였다.
- ② ㉠ -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 ③ ㉡ - 개혁안 봉사 10조를 올렸다.
- ④ ㉡ -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②

'이지영이 장군이 되었다. 그가 최충수 집의 비둘기를 빼앗았는데, 최충수가 화가 나서 그 형인 최충헌에게 그 사실을 아뢰고 이의민 부자를 죽이자고 하니, 최충헌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의민이 미타산 별장에 갔을 때, 최충헌 등이 가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저자에 내걸었다. 당시 이지순은 대장군이었고, 이지광은 장군이었는데, 변란의 소식을 듣고 가동을 이끌고 길에서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지영(?~1196), 이지순(?~1196), 이지광(?~1196)은 당시 무신 집권자인 이의민(집권 1183-1196)의 아들들이다(이지순이 장남이었을 것으로 추정). 최충헌(집권 1196-1219), 최충수(?~1197) 형제가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다.

최충헌은 고려 희종 5년인 1209년에 국정 총괄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는 최충헌이 아니라 그 전의 무신 집권자인 이의민이다. 아버지가 소금 장수, 어머니가 경주 남산에 위치한 옥령사의 노비인 천민 출신이었다.
- ③ 최충헌은 이의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명종에게 개혁안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1196, 명종 26)
- ④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한 인물은 최씨 무신 정권 제2대 집권자인 최우(집권 1219-1249)이다(1225, 고종 12). 참고로 정방은 충선왕과 충목왕, 공민왕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에 폐지되었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4)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③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여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걷은 것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1708).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신해통공).

## 25 - 조선 정조

【문25】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왕은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에 봉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할 준비를 하였다. 옛 규례에는 한강을 건널 때 용배[龍舟]를 사용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여 배다리의 제도로 개정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그 세목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았기에 국왕은 주교지남(舟橋指南)을 편찬하였다.

- ① 탕평비를 세웠다.
- ②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였다.
- ④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정답> ①

'국왕은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에 봉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할 준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옛 규례에는 한강을 건널 때 용배[龍舟]를 사용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여 배다리의 제도로 개정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그 세목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았기에 국왕은 주교지남(舟橋指南)을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현릉원은 조선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 세자(1735~1762)의 묘이다. 원래 경기도 양주군에 있었고 수은묘라 하였는데 정조 즉위년(1776)에 영우원으로 고쳤고, 정조 13년(1789)에 경기도 화성군으로 옮긴 후 현릉원이라 하였다. 또 『주교지남』은 한강에 설치된 배다리, 즉 주교(舟橋)의 운영 방안을 담은 책이다(1790, 정조 14).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국왕'은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운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오답 해설>

- ② (국왕의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한 것은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③ (훈련[무예] 교범인)『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한 정조 14년인 1790년의 일이다.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1741~1793)와 박제가(1750~1805)가 장용영 소속 장교 백동수(1743~1816) 등과 함께 편찬하였다.
- ④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이 상 -